

# 초대의 말씀

진리를 탐구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막바지에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회 대학교와 대학에 관한 교황령 「진리의 기쁨」(*Veritatis Gaudium*, 2017.12.8)”을 주제로 하는 학술발표회를 본 대학교의 사목연구소와 교회법연구소가 공동 기획으로 학문적 결실을 준비했습니다.

이 교황령은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이 1979년 4월 15일에 반포한 교황령 「그리스도교적 지혜」(*Sapientia Christiana*)를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개정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전망과 가치는 온전히 보전하면서 지난 40년 동안 학계에서 이루어진 발전들을 고려하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 변화된 사회 문화적 상황을 인정하며, 성좌가 꾸준히 추진해 온 다양한 사업들을(생명존중과 환경운동 등) 국제적 차원에서 실행할 필요성을 포함시켰습니다.

가톨릭계 대학교의 존재 이유는 교회의 목적과 일치합니다. 곧 교회의 복음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인류 가족이 하느님 안에서 결정적으로 충만해지도록 인류 가족의 진정하고 온전한 성장을 촉진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교회의 정체성 자체에서 흘러나옵니다”(「진리의 기쁨」, 1항). 교회 학문들의 학제는 이러한 교회의 복음화 사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는 이러한 복음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교회대학 교육 체계 지침을 밝힌 교황령 「진리의 기쁨」에 따라 교회법대학원을 설립하여 지난 2월 22일 교황청 가톨릭교육성으로부터 교회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승인을 받았으며, 신학대학은 교회 대학 승인 절차 중에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는 앞으로도 교회 대학으로서의 철학대학을 비롯하여 몇몇 단과 대학 설립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교황청립 대학교로 가는 데 필요한 교회대학의 목표와 가치를 확인하고 그 지침의 적용과 과정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자리에 여러분이 참여하여 빛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가톨릭대학교 총장 원 종 철 신부